

# 교회에 대한 복종과 저항 사이에 선 청년들

몇 주 전, 출석 교회 담임목사님의 재신임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새로 분립된 교회에 부임한 지 7년 된 담임목사님을 성도들이 판단하는 자리였다.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교회의 설립취지와 성경적 민주주의 실천에 부합한다 하여 투표가 진행되었고 담임목사님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얻었다. 목사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고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성도들의 투표로 담임목사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표 절차를 두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의를 제기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사방이 뚫린 예배당에 앉아 투표지에 가부(可否)를 표시하는 것은 비밀투표에 어긋나며, 투표용지를 주보와 함께 나누어 준 것은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항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한 청년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교회 측에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지문을 올리곤 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고 나온 청년들이 많다. 또한 그들은 리더나 청년부 회장 등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청년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긋나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고, 교회는 이들로 인해 건강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 청년들이 과거 몸담았거나 거쳐 온 교회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교회들부터 동네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다녔던 교회가 바른 신앙을 전하지도, 올바른 목회를 하지도 못했다고 말한다. 기독교 관련 뉴스만 보더라도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수백 억을 들여 호텔처럼 만든 교회도 있고, 담임목사의 성적, 도덕적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 교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교회들도 부흥이라는 명분하에 성도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기복신앙에 근거한 설교로 많은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다른 교회에도 등록하지 못한 채 아예 넌크리스천(non christian)이 되거나 가나안 성도(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 혹은 예수는 믿



아름다운 기독교청춘을 소개합니다!

## 청년 이관형


국민대 언론학과에 입학하여 당해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높은뜻 정의교회에 출석중이다. 도서출판 두날개, 월간 현대중교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2기 수료생이기도 하다. 현재는 경기대학원 전자출판콘텐츠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성도)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지금 한국 교회는 침몰중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그들은 교회학교에서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고 비판 없이 설교를 맹신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렇게 성인이 된 청년들은 교회의 불의나 뿌리 깊은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법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들은 앞을 보지도, 선인지 악인지 분간조차도 할 수 없다. 그저 목자의 지팡이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이다.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적어도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법을 안다. 최류탄을 맞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피를 흘리면서도 잘못된 위정자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썼다. 총과 칼로 무장한 잘못된 군부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의 힘과 직분의 권위로 무장한 잘못된 목회자이다. 군부세력이 폭력으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억압했다면 일부 목회자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권위를 통해 청년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순종에 내재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정신’에 대한 의지마저 꺾고 만다. 청년들의 비판 및 저항의식을 일찍부터 차단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된 것처럼, 분명 한국 교회도 바른 길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맹신과 복종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서의 저항이 필수적이다. 목회자들의 회개, 장로들의 깨어남, 집사들의 헌신 뿐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이 말씀으로 도전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

‘청년연단’은 기독교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는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교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